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3. 7. 31 | 통권 제42호(2013-06)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요약]

- 2005년 이후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2012년 2%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호조세(451천 명 증가)를 유지하는 데 자영업자의 증가세(135천 명 증가)가 큰 역할을 함.
-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불어닥칠 때마다 최일선에서 고용한파를 겪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 고용부진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조정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2003년 카드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부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 2012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경제는 저성장을 기록한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층과 도소매업·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5인 미만 '나홀로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된 바 있음.
-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 연령층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2009년에는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역전되어 2012년 현재 두 연령층 간 비중 차이는 무려 12.4%에 달함.
- 이들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정년퇴직 등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빠져나와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은 생계형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에서 '나홀로 사업체'를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자영업 부문 고용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현실에서 자영업자가 준비된 창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폐업 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한 자영업자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12년 자영업자의 고용증가폭 확대

- 2012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또한 2%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319천 명)와 자영업자(135천 명)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51천 명 증가함.¹⁾
 - 자영업자의 고용은 2011년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2년 현재 전년동기대비 135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 규모는 2000년대 초반 수준에 육박함.
 - 당시 2000년대 초반은 경제성장률이

4~8%대 수준이며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27~28% 수준이었던 반면, 2012년 우리 경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51천 명 증가하였고, 자영업자의 고용증가폭은 더욱 확대되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3.2%로 소폭 상승함.

- 사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최일선에서 고용한파를 겪어왔던 계층은 자영업자였음.
 -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 때 고용

〈표 1〉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규모 및 고용증감, 자영업자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규모	취업자	22,870	23,165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24,706
	임금근로자	15,177	15,535	15,958	16,208	16,444	16,954	17,388	17,707
	상용직	7,912	8,192	8,608	9,001	9,368	10,063	10,646	11,080
	임시직	5,047	5,134	5,172	5,079	5,104	5,074	4,990	4,999
	일용직	2,218	2,209	2,178	2,128	1,973	1,817	1,752	1,628
	비임금근로자	7,693	7,631	7,491	7,400	7,086	6,888	6,867	6,99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63	1,634	1,564	1,528	1,515	1,500	1,502	1,5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518	4,516	4,502	4,459	4,214	4,111	4,099	4,182
	무급가족종사자	1,512	1,481	1,425	1,412	1,358	1,277	1,267	1,264
고용증감	취업자	308	295	283	159	-77	311	413	451
	임금근로자	303	358	423	250	237	509	434	319
	상용직	301	280	417	393	367	695	583	434
	임시직	-35	87	37	-93	25	-30	-84	9
	일용직	37	-9	-31	-50	-155	-156	-65	-123
	비임금근로자	5	-63	-140	-91	-313	-198	-21	13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7	-29	-70	-35	-14	-15	2	5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0	-2	-14	-43	-245	-103	-13	83
	무급가족종사자	-58	-31	-56	-13	-54	-81	-10	-3
자영업자 비중	27.0	26.5	25.9	25.4	24.3	23.5	23.1	23.2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이며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이 글에서 2012년 수치는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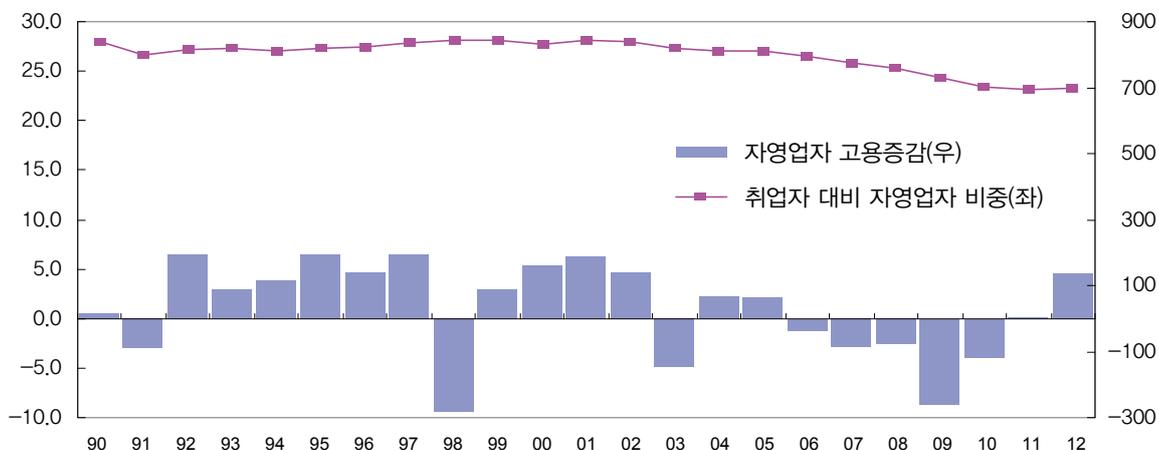
부진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조정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하반기 국제금융위기 때 고용부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히 5인 미만 나홀로 사업체의 휴·폐업

이 주요인이었음.

- 2012년 자영업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계층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임.
- 이들 연령층에서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

[그림 1] 자영업자의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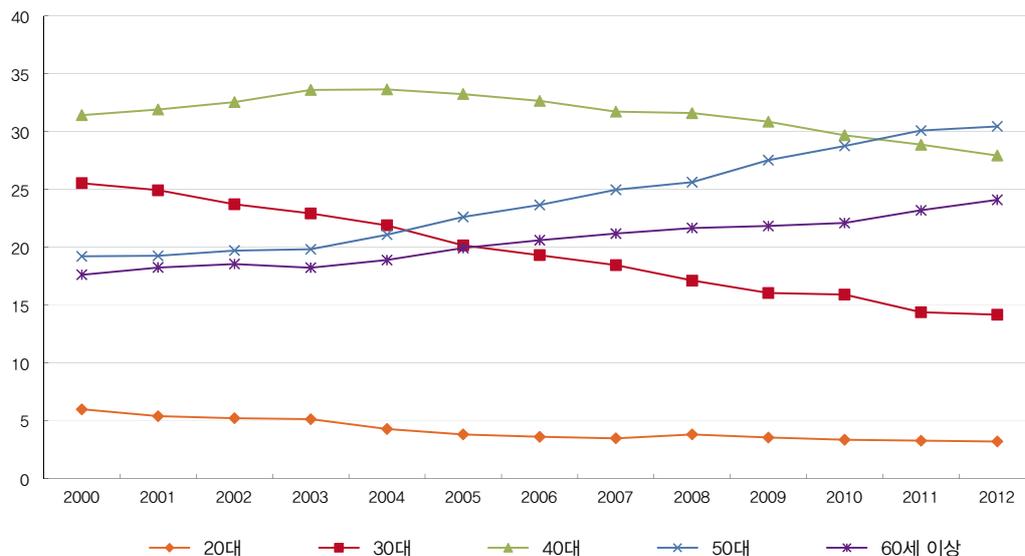
(단위:천 명, %, 전년대비)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이며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

(단위:%)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 144천 명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활발함.

- 2000년에만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7.0%)이 30~40대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이들 연령층에서 자영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과 30~40대 연령층의 비중이 역전됨.

- 2012년에 이르러서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4.6%)이 50세 이상 중고령층으로 구성되었고, 자영업자 중 두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점점 확대되어 2012년에는 12.4%p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2년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 기반 서비스업(112천 명)과 건설업(40천 명)이 주도함.

〈표 2〉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전통적 서비스업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비스업 자영업자	4,100 (40)	4,093 (-7)	4,106 (13)	4,081 (-25)	3,909 (-172)	3,797 (-112)	3,805 (8)	3,911 (112)
전통적 서비스업	2,661 (-40)	2,619 (-42)	2,587 (-32)	2,540 (-47)	2,468 (-71)	2,377 (-91)	2,394 (16)	2,467 (80)
50세 이상 서비스업 자영업자	1,417 (140)	1,518 (101)	1,601 (83)	1,613 (12)	1,629 (16)	1,644 (15)	1,749 (105)	1,846 (104)
전통적 서비스업	1,009 (73)	1,084 (75)	1,112 (28)	1,120 (18)	1,157 (38)	1,174 (17)	1,242 (68)	1,295 (157)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12 (59)	863 (51)	892 (30)	894 (2)	925 (31)	952 (26)	1,009 (57)	1,036 (29)

주: 전통적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을 포함하며,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안은 전년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별·가구주 여부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영업자 전체	161	186	140	-148	67	62	-38	-85	-79	-259	-118	1	135	
규모	5인 미만	-163	156	95	-211	58	89	3	-47	-64	-258	-95	18	141
	5~9인	231	16	32	26	19	-21	-25	-7	-23	10	0	-11	-0
	10~29인	68	17	12	25	0	-2	-12	-23	12	-16	-17	-3	-3
	30~99인	24	-2	-2	11	-9	-2	-4	-6	-2	4	-7	-3	-4
	100~299인	1	1	3	-0	-2	-0	0	-2	-2	-0	-0	0	1
	300인 이상	1	-0	-0	0	1	-1	-0	-0	-0	-	-	-	-
가구주	가구주	144	127	116	7	-4	65	-11	-68	-68	-259	-123	-8	108
	비가구주	18	60	24	-155	72	-3	-27	-17	-11	-0	5	10	27

주: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0천 명 증가함. 특히 이들 전통적 서비스업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5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정년퇴직 등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빠져나와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은 퇴직금이나 가족들의 돈을 모아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에서 '나홀로 사업체'를 창업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즉 고용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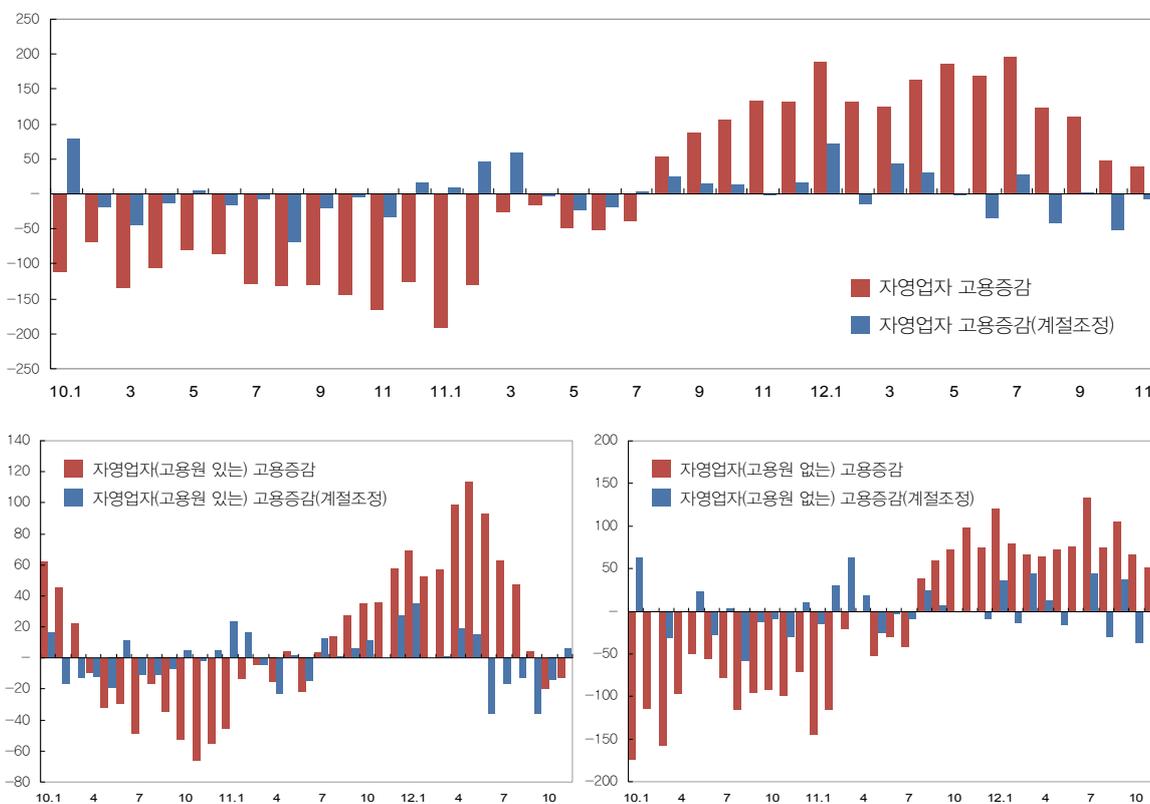
없는 '나홀로 사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141천 명)하였으며, 가구주인 자영업자 또한 55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천 명 증가함.

2013년 자영업자 고용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활발했던 자영업 고용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2012년 11월 현재 자영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38천 명 증가에 머물렀으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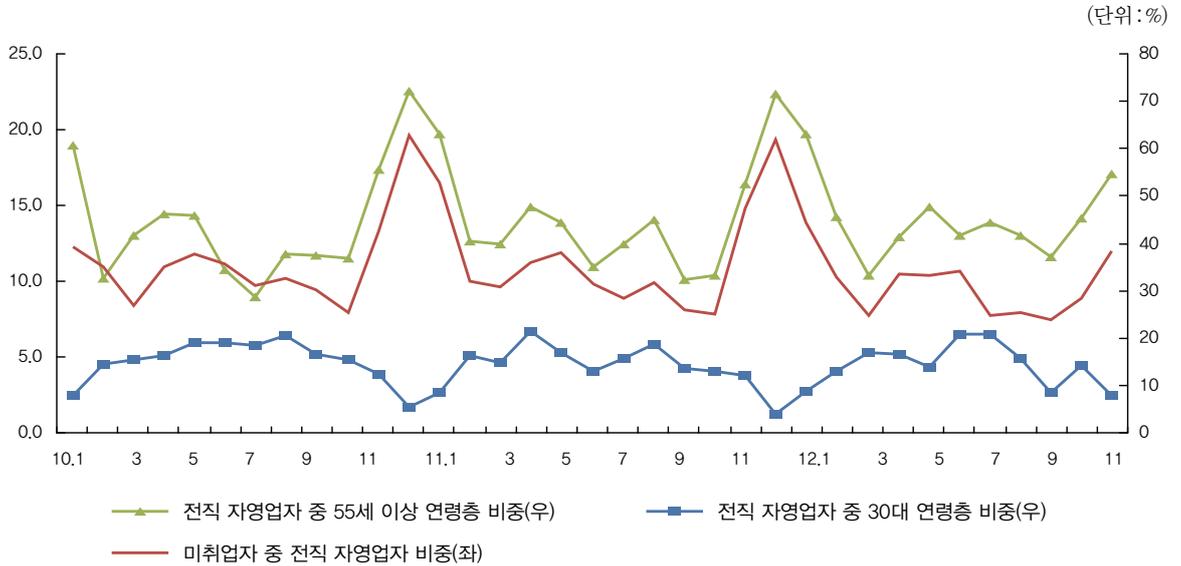
[그림 3] 자영업자의 고용증감(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그림 4] 1개월 미취업자 중 전직 자영업자의 비중 및 30대·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2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11월 현재 13천 명 감소함.

- 더불어 미취업자 중 이전 직장이 자영업자였던 비중이 2012년 하반기 들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중 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또한 확대되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12년 10월 이후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자영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는 노동시장에 고용한파를 초래함. 이에 자영업자는 2009년 259천 명, 2010년 118천 명 감소라는 고용한파를 겪음.
- 2011년 8월부터 고용증가세로 전환했던 자영업자는 2012년 10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계절조정치)은 5개월 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계절조정치)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2013년 자영업 부문의 고용 사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2년 신규자영업자의 비중 감소

- 창업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규자영업자는 601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0.4%를 차지하여 전년동월대비 1.1%p 감소함(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자영업자의 감소는 창업보다는 기존 자영업자들이 현 사업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 창업 1년 미만인 신규자영업자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체였으며, 전통적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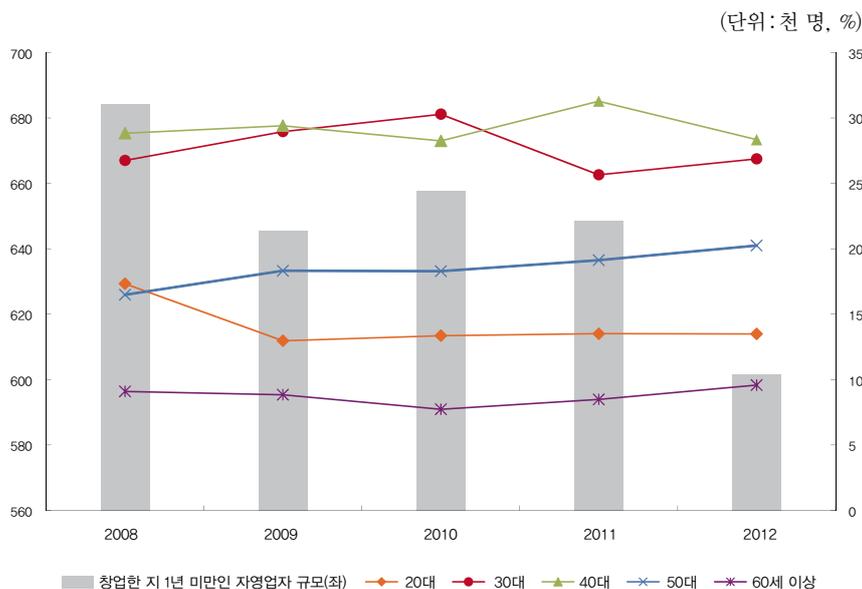
스업 부문에서 감소폭이 컸으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창업이 감소하였고, 특히 40대 연령층의 감소폭이 컸음.

- 2012년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던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9.4년(음식숙박업 6.3년), 교육서비스업(5.1년), 예술·스포츠 관련 여가산업(5.9년)등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이 제조업, 건설업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자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고용원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은 적금, 퇴직금, 명퇴금이 포함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63.3%로 가장 높음.

- 2012년 8월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비해 4.3%p 증가함.
- 신규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자영업자보다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승계나 무자본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창업자금을 조달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자영업자의 창업자금 규모는 5백만 원 미만의 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6%로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 만약 이들이 도산하였을 경우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게 되는 것이 현실임.

[그림 5]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규모 및 연령별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표 4〉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조달방법 및 창업자금 규모

(단위: %)

		자영업자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창업자금 조달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적금, 퇴직금, 명퇴금 등)	57.3	59.0	61.3	63.3	52.4	57.2	56.4	60.7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	3.5	3.2	3.0	2.5	4.7	3.3	4.5	2.2
	친지 또는 동업자 이외 타인에게 빌려서 마련	4.7	4.5	3.6	3.1	3.4	4.4	4.1	4.1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11.1	10.6	11.4	10.8	11.6	9.5	13.4	9.4
	사채, 대부회사 등	0.7	0.6	0.6	0.4	0.3	0.7	0.6	0.1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 등	0.4	0.5	0.4	0.3	0.0	0.3	0.3	0.3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사업승계, 무자본창업 등)	22.2	21.2	19.4	19.4	27.0	23.7	20.1	23.1
	기타	0.2	0.3	0.3	0.2	0.6	0.8	0.7	0.2
창업자금 규모	5백만 원 미만	34.2	33.0	30.8	30.2	39.3	36.8	31.4	34.6
	5백만~2천만 원 미만	23.6	23.3	22.9	23.8	21.4	19.1	20.1	22.1
	2천만~5천만 원 미만	22.1	22.5	22.0	22.6	21.9	23.3	22.6	23.1
	5천만~1억 원 미만	12.8	13.6	16.3	15.4	11.4	13.8	16.9	12.8
	1억~3억 원 미만	6.2	6.3	6.6	6.3	5.5	6.0	7.7	6.0
	3억 원 이상	1.1	1.3	1.5	1.7	0.6	0.9	1.3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8월)」 원자료.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자영업 푸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부는 바람은 매섭기만 하고, 특히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놓임.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2012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도록 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함.

- 자영업자가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여 준비된 창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폐업 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산업재편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02-3775-5579 / seesaram@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